

## [ 오피니언 ]

## 월/요/광/장

장성민



한 판사의 이상한 처신으로 대한민국이 다시 불안과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최근 들어 대한민국을 불안하게 만든 몇 가지 사례들이 있다. 나라의 불안과 혼란의 첫 번째 주범은 역시 연쇄살인범 강호순, 유영철과 같은 사이코 폐스들의 협기적인 살인 행각이다.

두 번째 주범은 여의도 국회다.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국민과 국가를 걱정하는 모습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는 지금의 국회는 가끔 이만기와 강호동이 전성시대를 구가했던 씨름판 같기도 하고 김 일, 장영철과 같은 프로레슬러들의 레슬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최룡만, 주성훈이 꽂 피우고 있는 K1 격투기장을 방불케 한다. 씨름, 레슬링, K1과 같은 스포츠는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덜어 주는 기쁨의 스포츠이지만, 정치인들의 육박전은 국민 고통과 스트레스를 배가 시킨다. 그래서 지금의 국회는 우리 국민들의 가슴속에 불안과 혼란의 하브로 각인되어 철거대상 1호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나라의 불안과 혼란의 주범으로 새롭게 등장한 두 집단이 있다.

## 판사의 거짓말

판사는 지난해 서울 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 할 당시 개별 재판부에 전화를 걸거나 별도의 e메일을 보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신 대법관은 촛불 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단체 e메일을 보내 “부담되는 사건은 후임자들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이 미덕”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독촉한 반면, 지난해 말 전교조 사이트에 북한 관련 게시물을 올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교조 교사 사건을 맡은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선고를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법관은 집시법 위헌재청으로 촛불 사건 재판의 보류를 결정한 한 단독판사에게 개별 e

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또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리고 야간 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위원회 청정 사건 처리를 논의 하려고 지난해 이강국 현법 재판소장을 만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세상을 어지럽히는 의혹을 해결하고 사회적 부조리를 척결하여 사회 안정을 지키는 국법질서의 파수꾼이 아니라, 불안과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의혹의源头가 되고 있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그의 발언은 헤미

한 기억상실증을 빚어 잘못된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재판의 형량을 감해 보고자 하는 일반 피의자들에게서나 들어본 듯한 그런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신 대법관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증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국회에서 위증은 혼란법 위반이다. 그의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그는 징역 1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한 판사의 출세를 위해서 3권분립의 제도가 파괴되고, 사법부의 권위와 대통령의 통치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통째로 무너지는 그런 우를 범해서야 되겠는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사회에서 법관은 양심과 정의의 상징이자 마지막 보루로 남아야 한다. 그러려면 고리대금하는 판사가 사기꾼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하며, 재판관이 도둑질을 하여 도둑에게 도둑질할 권리까지 부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사실 판사는 “말하는 법이고 법은 말하는 판사”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소송사건에서 판사가 되어서는 안 되며, 판사는 판사복을 입을 때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고 족족가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포도주라고 와인과 식초를 파는 판사가 존재하는 한 그런 나라에 양심과 정의는 존재할 수 없다.

&lt;세계와 동북아 평화포럼 대표&gt;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송광운

해마다 ‘희망나눔 캠페인’을 벌이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상징은 ‘사랑의 열매’다. ‘사랑의 열매’는 우리나라 야산에 자생하는 산열매를 형상화 한 것이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03년에 ‘이달의 나무’로 백당나무를 선정하면서 겨울 눈꽃사이로 빨갛게 열리는 열매가 추운 계절에 우리 주위를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과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을 상징하는 ‘사랑의 열매’와 같은 꽃을 비유해 관심을 끌었다.

사랑의 열매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을, 세 개의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나타낸다. 빨간 열매 세 개로 상징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부금 결과는 사랑의 열매를 전후해 전달된다.

## 희망의 큰 불길 ‘얼굴 없는 기부’

왕의 온도로 측정되는데, 올해도 100도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지난 1월말에 모금이 끝난 모금액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금을 시작한 1998년 이래 처음으로 2천억원을 넘어선 2천63억원이 모금됐다고 하니 나눔 문화의 확산은 일어붙은 대한민국을 녹이기에 충분한 온도다. 유례없는 극심한 불황속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것은 나눔의 온정이 뚝뚝 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희망의 메시지다.

매우운 경제 한파 속에서도 봄볕과 같은 훈훈한 소식이 들려온 것은 무엇보다 개인 소액기부자들의 조그만 손길이 큰 힘을 발휘한 덕분이다. 소액기부는 작은 온정이 소리 없이 눈처럼 쌓여 ‘작은 기적’을 만들어 낸다. 특히 이를 없는 익명의 기부자, ‘얼굴 없는 천사’의 손길은 사회를 덥히고 미래를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들이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것들만이 아니다. 조그마한 선행도 부풀리고 일리려는 풍도 속에서 자신을 낮추고 감추며 날 몰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들은 한결같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다. 그래서 사랑의 울림이 더욱 크고 감동스럽게 다가온다.

지난해 5월에 400억원대의 부동산을 고려해 병원에 기부한 60대의 할머니는 “좋은 일에 써 달라”는 주문 말고는 돌

아가신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른 것일 뿐이라며 한사코 선행을 숨기는 겸손을 보였다. ‘아름다운 부자’의 주인공으로 15년 동안 총 6억달러를 익명으로 기부한 미국의 척 피니는 실제가 밝혀졌을 때 고작 15달러짜리 시계를 15년 동안 쓰고 있고 집이나 자동차도 없는 지금 히 검소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훌륭한 기부’를 한 그의 소박한 대답은 더욱 잔잔한 과정을 만들어 낸다. ‘돈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한꺼번에 두俣례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당당한 부자였던 그는 돈쓰는 것도 당당했다. 불우한 이웃들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우리 북구에 설 명절을 전후해 전달된 크

기고



김재욱

지금 경기가 침체기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人山人海를 이루는 곳이 있다. 바로 필자가 몸담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의 각 영업점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 신용보증을 신청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이나 음식점 등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사람들이 북적여야 하는 데.. 참으로 아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신용보증재단을 책임지고 있는 필자에겐 막중한 책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하는 대목이다.

세계 170여 개국에 생중계로 광주를 알리고 10,000여명 이상의 대학생 등이 이번 경제위기는 전세계적인 현상이

## U대회 유치 지역경제 회복 전기 되길

므로 우리 독자적인 힘만으로 해쳐나가기엔 한계가 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에서 보듯이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돌파구 찾기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경제난국을 해쳐나갈 돌파구로 앞으로 3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는 ‘2015하게 유니버시아드대회’ 개최지 선정에서 찾고자 한다. 흑자들은 앞으로 6년 뒤에 있을 일이라 당장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관심 밖의 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는 듯 하다. 하지만 대회유치에 따른 효과를 보면 이런 생각이 크나큰 오산이란 것을 곧바로 직시할 것이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전국 기준 생산유발효과가 9천500억원, 부가가치 효과 4천500억원, 고용유발효과가 3만여 명 정도로 예상되어 엄청난 과급효과가 아닐 수 없다. 둘째는 지난해 U대회 유치를 위해 광주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이번에도 벌써부터 15만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지원단

## 놀이터 고무매트 아토피 유발... 안전기준·관리 필요

얼마전 놀이터에서 놀다 들어온 아이의 다리 쪽에 온통 아토피가 올라왔다. 의사선생님은 아이가 고무매트에서 놀은 것 같다며 거기에 아토피 알레르기 있으니 고무매트에서 놀지 말라는 당부를 해주셨다.

그리고 보니 요즘 아파트나 일반 놀이터 주변 바닥에 예전에는 모래를 놨는데 그게 사라지고 언제부턴가 고무매트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래에 개나 둘취, 고양이

이들의 배설물이 들어가고 그게 대장균이나 여우 전염균을 퍼트린다고 해서 그런듯하다.

그러나 고무매트는 폴리아이드 등을 재활용한 것이다. 타이어에는 합성 화학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환경건강 측면에서는 위험할 수밖에 없다. 자라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고무매트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대로 만들고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lt;▲인자·광주 남구 백운동

시설

## 급증하는 무보험 차량 방치만 할 건가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 크게 늘고 있다. 이를 무보험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피해자가 인적·물적·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는 아닐 수 없다.

문제는 무보험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 역시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게 된다.

상황이 이런 데도 당국의 단속은 느슨하기 짜이 없다. 정작 단속해야 하는 각 구청들이 인력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설상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무보험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 당국은 시민안전을 위해서라도 무보험 차량에 대해 강제 운행 정지나 보험 미가입 스티커 부착 등 강력한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 환율·물가 폭등에 휘청이는 서민가계

최근 환율이 오르면서 한동안 주춤했던 장바구니 물가가 다시 꼼틀거리고 있다. 설탕, 식용유, 소주, 세제 등 생필품을 중심으로 소비자 가격이 일제히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생필품 가격 인상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서민 가계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 실업, 임금삭감 등으로 실질소득은 많이 줄어든 데 반해 생활비 부담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광주시가 발표한 3월 주요 생필품 가격동향에 따르면 광주지역 대형 마트의 주요 생필품 평균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이명박정부의 대표적인 물가관리 품목인 설탕, 식용유 값이 크게 상승했다. CJ제일제당의 ‘백설식용유’(1.7ℓ)는 종전 5천200원에서 5천750원으로 10.5%, ‘백설 포도씨유’(900ml)는 8천100원에서 9천500원으로 17.3%씩 각각 올랐다. 1kg에 1천19원이었던 흰설탕은 이번주부터 1천180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1월 15% 오른

無等鼓

유니버시아드(Universiade)는 세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종합경기 대회다.

대학(University)과 올림피아드(Olympiad)를 합성한 어원이 시사하듯 이 대회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제하고 아시아주리즘과 폐어 플레이어라는 올림픽 정신을 올곧게 계승해온다.

그 전신은 1923년 파리에서 첫 대회를 연 뒤 1939년 빈(제10회)까지 이어진 ‘세계 학생 경기 대회’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동·서로 분열돼 각각 별도의 대회를 개최했다. 냉전체제가 완화되면서 1949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이 공식 발족됐고 1957년

파리에서 비로소 공동 대회가 열렸다. 유니버시아드라는 명칭이 처음 쓰인 것은 1959년 이탈리아 토리노 대회였다.

이처럼 유니버시아드는 이념적 대립을 초월하려는 노력에서 탄생했다. 지금은 세계 170여 개국에서 1만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육상·축구 등 13개 종목

에서 기량을 겨루는 대규모 스포츠제전

으로 성장했다.

유니버시아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이자 문화·교육의 중심지인 광주의 이미지와도 맞아 떨어진다. 더욱이 광주는 스포츠마케팅 분야에서 국내 다른 대도시에 한참 비해 뒤쳐진 상태다.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를 유치하면 처음으로 대규모 국제 대회를 치르게 된다.

나아가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동시에 입장, 공동 훈련 등을 추진하면 스포츠 교류는 물론 경색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화 체제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5년 U대회 개최지 선정을 위한 현지 실사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광주시는 오는 14일 FISU에 유치신청서를 공식 제출한 뒤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회 유치에는 정부 지원과 경기장 시설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관건이다. 유치 열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가늠하는 것이 핵심 평가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광주 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柳濟喆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登記번호 광주 11(일간)
대표전화	2200-551-222-8111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면집	222-4918	사회	2부 2200-692
정체	FAX 222-4918	2부	2200-511
경체	면집부 2200-672	2부	문화 227-0118
경체부	정체부 2200-634	2부	661
경체부	경체부 2200-641	2부	679
사회	사회 2부 2200-612	2부	691
사회부	FAX 222-4267	2부	651
사회부	면집부 2200-672	2부	651
면집부	정체부 2200-634	2부	651
면집부	경체부 2200-641	2부	651
면집부	면집부 2200-672	2부	651
면집부	면집부 2200-634	2부	651
면집부	면집부 2200-641	2부	651
면집부	면집부 2200-67		